

亞細亞經濟協力體 構成에 關한 問題點 檢討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Asian Economic Community—

崔鍾起

by Chong-Ki Choi

目 次

I. 序論	二. 亞細亞貿易의 特徵
一. 두가지 흐름	三. 輸出構造
二. 亞細亞의 問題點	四. 輸入構造
II. 亞細亞 地域의 特殊性	五. 域內貿易規模
一. 概觀	六. 各國主要輸出品目
二. 亞細亞의 貿易構造	七. 韓國經濟의 域內 依存度
三. 所得構造	IV. 亞細亞의 經濟協力에 關한 努力
四. 工業構造	一. 印卡峴의 活動
五. 經濟協力上 問題點	二. 經濟協力의 利益과 努力
III. 亞細亞 地域의 貿易	三. ASEAN 및 RCD
一. 世界貿易中 亞細亞의 位置	V. 結語

I. 序論

1. 두가지의 흐름

오늘 世界經濟는 크게 두가지 潮流가 흐르고 있다. 그 하나는 貿易自由化이며, 다른 하나는 地域的인 「밸류」化의 傾向이다. GATT와 Kennedy Round는 前者の 움직임이며, EEC, EFTA, LAFTA, CACM, RCD 및 「아랍」共同市場 등은 後者の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地域經濟協力은 크게 다섯가지 形態로 分類해 볼 수 있다. 첫째로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을 設定하는 것으로, 地域內의 物資의 移動 즉 商品의 流動을 汅害시키고 있는 여러가지 制限을 除去하려는 것이다. 加盟國間의 關稅와 數量的인 貿易制限을 一定期間廢止하고, 地域內의 貿易을 自由로 하는 것으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

ciation),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關稅同盟(Custom Union)으로, 自由貿易地域이 行하는措置 즉 域內關稅와 數量의인 撤廢外에, 地域外의 國家이 對한 關稅에 對하여 共同步調를 取하는 對外共通關稅의 設定을 들 수 있다. 셋째는 共同行場(Common Market)으로서, 關稅同盟을 土臺로 人과 資本의 移動을 完全히 自由롭게 하는 것으로, 生產要素의 移動에 對한 制限도 撤廢되는 것으로 中美共同市場(CACM), 東「아프리카」共同市場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經濟同盟(Economic Union)으로 經濟全般의 政策를 調整하려는 것으로, 商品의 流動과 生產要素의 移動에 對한 制限을 撤廢함과 同時에, 各加盟國間에 經濟政策의 統一도 어느 程度 實現하려는 것으로, 1958年 設立된 「베네룩스」 經濟同盟이고, 마지막으로 全面的 經濟統合(Tot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經濟同盟이 目標하는 經濟政策의 調整에서 더욱 나아가서 모든 經濟政策의 統一을 實現하려는 것으로, 必然的に 各國의 主權으로부터 獨立한 行政機構의 設置가 必要하게 되며, 歐羅巴共同市場(EEC)은 이에 該當한다. 이외에 特定部門에 限한 部門別 統合을 볼 수 있다.

어느 形態[거나] 世界의 大潮流 속에서 唯獨 亞細亞만은 어떤 具體의인 結實이 없이 疎外地帶로써 남아 있다.

그結果 오늘날 世界的으로 그 問題가 擡頭되고 있는 바 南·北問題가 가장 深刻하게 提起되고 있다. 先進國「구룹」의 「뿔력」化는 疏外地域에 對해서는 더욱 緊迫한 制限을 加한다고 볼 수 있다. 그 結果 別表 1에서 보는바와 같이 輸出面에서 東南亞는 世界市場 占有率이 1963年에 6.3%에서 1966年에는 5.5%로 減少되고 있는 現狀을 볼 수 있다.

<表 1> 地域別 輸出市場占有率 (단위 : %)

地域別	年 度	1963	1964	1965	1966
개 발 지 역					
북	미	22.2	22.7	21.8	22.3
E	E C	27.6	27.9	29.0	29.1
E	F T A	16.6	16.0	16.1	15.8
기	타	2.9	3.0	8.0	8.1
호 주, 호 주, 일 본		7.8	8.0	8.4	8.7
개 발 지 역 (전 역)		77.1	77.7	78.2	79.0
저 개 발 지 역					
라 틴·아메리카	메 카	8.0	7.5	7.3	7.1
중	동	4.3	4.3	4.3	4.3
동	남 아	6.3	5.8	5.6	5.5
아	프 리 카	4.2	4.4	4.3	4.1
기	타	0.2	0.2	0.2	0.2
저 개 발 지 역 (전 역)		22.9	22.3	21.7	21.0

주 : 단수 절상(및 결하) 관계로 각지역별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각지역 전역의 시장점유율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음.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ay, 1967.

이와 같이 해가 갈수록加重되고 있는 貧益貧의 現狀은 亞細亞도 地域的 經濟協力 方式으로써 解決해야 되겠다는 必要性을 切實하게 「어필」하는 것이다.

二.. 亞細亞의 問題點

地域的 經濟協力體 構成에 있어서 必要한 要件을 檢討하고 亞細亞의 경우와 問題點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經濟協力體가 이루어 질려면, 첫째로 各加盟國의 經濟發展段階가 近似해야 한다. 特定國이 너무 未發達되어 있거나 혹은 너무 先進的인 段階에 있을 때에는 相互 經濟協力關係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低開發國은 經濟發展段階가 높은 先進國의 商品市場화될 우려가 크고 그에 隸屬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亞細亞에 있어서는 이러한 點이 가장 큰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다. 域內諸國의 經濟發展程度를 보면 別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과 같은 나라는 高度로 工業化되어 있는 반面, 그의의 諸國은 開發狀態가 低位에 있어 世界에서도 가장 極甚한 格差를 나타내고 있다. 所得

<表 2> 亞細亞諸國의 產業構造 및 1人當 國民所得

國別	산업별 국민소득	인당 전 산업	농 업	공 업	전 설 업	운 송 업	상 장	연 기	타 기 준 년 도
베 트 남	57	100	33	16	3	4	24	20	1964
캄 보 디 아	68	100	41	12	6	2	21	18	1963
세 일 본	137	100	46	7	6	8	11	22	1964
자 우 중 국	121	100	27	25	3	5	15	25	1964
인 도 네 시 아	73	100	47	19	—	15	—	19	1963
이 란	153	100	24	29	3	7	18	19	1963
이 라 크	162	100	16	47	3	7	5	21	1963
이 스 라 엘	1,232	100	10	24	8	9	18	31	1964
일 본	551	100	13	32	7	10	16	22	1964
요 르 단	223	100	19	10	5	11	23	32	1963
한 국	110	100	51	13	3	4	9	20	1964
말 레이 지 아	27	100	31	18	5	3	17	26	1963
파 키 스 탄	74	100	49	12	4	6	12	17	1963
필 리 핀	125	100	33	22	3	3	12	27	1964
시 리 아	119	100	37	13	4	9	16	21	1964
태 국	106	100	34	14	5	9	18	20	1963
더 어 키	272	100	38	17	6	9	8	22	1964
월 남	68	100	33	13	1	4	12	35	1964

출처 : U.N. Statistical Yearbook, 1965. (日本은 1968 年度에 923 弗, 韓國은 130 弗)

構造에 있어서도 先・後進國間에 顯著한 差를 보이고 있어 亞細亞 全域을 包含한 協力體 設立은 困難할 것으로 判斷된다.

다음 貿易構造를 살펴보면 亞細亞諸國은 1次產品을 輸出하고 工產品을 輸入하는 後進的

貿易構造인 것이다. 別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과 香港을 除外한 거의 大部分의 國家들의 輸出品構成이 一次產品에 依存하고 있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工產品의 比率이 壓倒的이다.

農產物이 總輸出에 占하는 比重을 보면, 泰國, 「버마」, 「씨론」 等은 80%이상이며, 馬來, 印尼 등은 70%에 가까운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3> 亞細亞諸國의 貿易構成 (%)

	1次產業 輸出額比率		工產品 輸出額比率	
	1964	1965	1964	1965
自　由　中　國	84	41	52	59
香　港	5	4	50	49
印　度	52	50	67	70
印　度、尼　西　亞	78	—	—	—
韓　國	49	37	51	53
馬　來　來　賓	82	81	45	48
比　　得　　賓　　波	82	88	61	60
泰　國	26	25	38	39
越　南	73	62	77	79
日　本	80	71	88	91
	8	—	26	22

資料 : U.N.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Aug., 1966)

地域經濟協力이 이루어 지기 為해서는 地域內各國間產業에 있어서 相互補完性이 있어야 수월한 것이다. 그러나 亞細亞諸國은 앞에서도 檢討한 바와같이 商品別 貿易構造에 있어서나, 資本 및 移動에 있어서相互補完關係가 稀薄한 것이 事實이다. 域內諸國은 大部分이 經濟開發에 漬身의 努力を 傾注하고 있으나 資本蓄積의 寡少로 고민하고 있으며, 그結果 工業化의 速度는 완만하고 經濟成長은 少數 몇나라를 除外하고는 지지부진한 狀態에 있는 것이다. 其中部分으로 工業化에 成功하여 自給自足하거나 一部를 輸出하는 경우에도相互競合의에서 或內全體面에서 巨視的인 考察을 할때는 資本의 非效率的 投資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資本 寡少와 少額의 投資로써 效率性을 期하고相互補完性을 形成해 나가기 위해서는 投資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부터 國際分業을 目標로하여 比較優位에 있는 部分을 特化시키고 經濟協力を 增大시킬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는 것은 亞細亞에 있어서 將次地域經濟協力達成하는 要綱가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

또한 地域經濟協力에 있어서는 地理的인 近接性과 政治的인 同質性이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歐洲共同市場의 경우를 보더라도相互國境을 맞대놓고 歷史를 같이한 6個國이 政治的인 共同運命을 打開하기 為해서 쌓아 올렸던 많은 努力들이 오늘날의 協力體를 完成하는데 成功했으며, 其外 다른 國際經濟協力機構를 보더라도 政治性을 떠나서 純粹한 經濟的인 協力體를 이루는 事例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亞細亞에 있어서는 域內諸國들이 政治的

으로 異質的이며 特히 反共國家와 容共乃至 共產國家들과의 葛藤은 深刻의 度를 더해 가고 있는 것。다. 이와같은 問題點은 必然적으로 亞細亞의 모든 나라들을 包含한 協力體의 形成을 不可能케 만들고 있으며, 反共國家들 끼리의 經濟協力體構成만이 問題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地理的인 遠隔性에서 오는 「핸디캡」은 오늘날과 같이 發達된 交通·通信의 時代에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國際貿易에 있어서 地球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의 國家들 間에 龐大한 規模의 貿易이 行해지고 있는 경우를 볼 때 實際로 亞細亞에 있어서 地理的인 遠隔性은 問題가 되지 낳을 것이며, 距離上 增加된 輸送費는 經濟協力體構成時 關稅와 制限撤廢에서 오는 利益에 比하면 問題도 되지 않는다.

II. 亞細亞地域의 特殊性

一. 概觀

先進國門에 이미 成就된 經濟的 協力·統合問題의 影響을 받아 落後된 亞細亞地域에서도 새로운 經濟協力의 漸進的인 「무드」가 成熟되어 가고 있다. 亞細亞의 面積은 全世界陸地面積의 6分의 1乃至 7分의 1을 占有하며, 世界的인 大山脈, 大高原, 大河谷 및 海岸이 이 地域을 分割하고 氣候를 支配하고 있다⁽¹⁾.

이러한 自然條件下에 世界總人口의 半以上이 居住하고 있으나, 人口의 分布는 均等치 않다. 印度(4億 7千萬)와 中共(約 7億)의 人口數가 本地域의 70%以上の 人口를 占하고 있다⁽²⁾. 이地域의 人口增加率도 높으며, 一部地域에서는 人口增加率이 年平均 3%를 上廻하여 이 慢態가 持續되면, 中共을 包含한 本地域의 總人口는 約 20年後에는 2倍가 되어 現在의 世界人口總數와 비슷하게 된다⁽³⁾. 特히 東南亞諸國의 거의 大部分은 19世紀末葉부터 20世紀初以來, 西歐先進國의 植民地, 半植民地乃至 屬領으로서 政治的으로 支配되어 왔으며, 經濟의 基本的 性格도 植民地經濟로서 政治的獨立을 獲得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經濟에 있어서는 그 性格을 바꾸지 못하고, 貧困의 惡循環을 되풀이 하고 있다. 東南亞諸國은 政治的인 意味에서의 同質性의 意識과 結合關係는 存在하지 않으나, 經濟開發의 達成이라는 共通의 目的에는 一致하고 있다.

亞細亞諸國 大部分이 過去에 植民地였다는 事實에 깊히 影響을 받고 있으며, 農業이 占하

(1) David Wightman, *Toward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3, p.3.

(2)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 Data Available as of October, 1965*, U.N., p. 8.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5, United Nations, 1966, p. 266.

(3) Richard T. Gill, *Economic Development: Past and Pres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pp. 3~6.

Pau Albert, *Economic Development: Objectives and Method*, London, The Free Press of Glencoe Collier-Macmillan, Ltd., 1963, p.92.

는 比率이 매우 크며⁽⁴⁾, 그 結果 工業이 占하는 比重은 相對的으로 적다. 日本을 除外한 大部分의 國家이 있어서는 工業이 未發達된 狀態에 있어 國民의 生活水準은 主로 農業의 生產性에 左右된다고 할수 있다⁽⁵⁾. 또한 亞細亞諸國의 貿易量은 적고, 그伸長도 크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舊宗主國을 包含한 歐美等 先進國과의 貿易이, 域內諸國과의 貿易에 比하여 보다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⁶⁾.

◇ 發展途上地域의 對外貿易 (單位: 百萬弗, %)

地 域	區 分	輸 出				輸 入			
		1966年 (百萬弗)		年度別比率		1966年 (百萬弗)		年度別比率	
		1954-56 1964-66	1964 1965 1966	1954-56 1964-66	1964 1965 1966	1954-56 1964-66	1964 1965 1966	1954-56 1964-66	1964 1965 1966
亞 非 利 卡 南 中 近 東 東 全 發 展 途 上 國	(美 國 東 南 亞 國)	(8,360) 11,700 (7,190) (10,000) (39,300)	(5.6) 3.1 (8.4) (3.3) (4.5)	15.6 8.6 14.5 3.9 9.3	7.2 (7.6) 4.6 5.8 7.7 (9.8) 5.1 (7.1) 5.3 (6.9)	(8,290) 10,820 (5,100) (13,850) (41,300)	(4.3) 2.8 (7.8) (5.4) (4.6)	8.1 10.8 15.1 7.8 9.7	7.2 (3.1) 0.9 11.4 11.2 (9.6) 4.7 (9.2) 5.0 (8.4)

二. 亞細亞의 貿易構造

亞細亞諸地或의 國際貿易上에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⁷⁾, 「에카페」(ECAFE)地域의 輸出比重은 1955年에 13.9%, 1960年 13.6%, 1965年에 14%, 輸入面을 보면 1955年에 14.3%, 1960年 15.1%, 1965年 14.8%이다. 이中에 「에카페」地域內의 發展途上의 諸國의 輸出比重을 보면, 1955年에 8.9%, 1960年에 7.5%, 1965年에 6.5%로서, 輸出의 比重이 低下되고 있으며, 輸入面을 보면, 1955年에 8.5%, 1960年 8.7%, 1965年 7.6%이며, 國際貿易의 傾向은 低開發地域의 貿易比重이 低下되고 先進諸國의 貿易은 보다 活潑함을 알 수 있다.

特히 經濟上에 統合에 의한 歐羅巴共同市場은 國際貿易面에서의 比重이 共同市場構成後에 上昇함을 알 수 있다⁽⁸⁾. 輸出面의 比重을 보면, 1955年에 22.4%, 1960年 26.3%, 1965年 29.1%로 繼續上昇하고 있으리, 輸入面을 보더라도 1955年에 22.4%, 1960年 24.8%, 1965年에 28.2%를 示顯하고 있음을 꼭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亞細亞諸國間의 協力關係는 稀薄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4*, U.N., 1965, p.7.

農業從業人口比率를 보면, 泰國(1960年)은 80%, 北「보로네오」(1960) 74%, 越南 71%, 「캄보디아」(1958) 71%, 印度(1951) 70%, 「사라왁」 70%, 比律賓(1948) 61%, 日本(1960) 38%, 「뉴지蘭」(1950) 12%, 濟洲(1950) 19%이며, 韓國(1955) 67%, 한편 韓國은 1966年 1次產業就業人口는 57.9%(韓國經濟年鑑, 1967, 韓國經濟人協會刊, p. 62).

(5) Wightman, *Toward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op. cit., pp. 6~5.

(6) *International Trade 1966*, op. cit., p. 227.

(7)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U.N., 1967, p. 158.

(8) Ibid., p. 158.

三. 所得構造

大部分의 亞細亞諸地域의 年間 經濟成長率은 2% 未滿이다. 이를 歐美와 比較하되 보면, 極東의 個人所得 增加率이 年間 3%인데 比하여, 北美等 先進國의 그것은 6%로서 倍以上的 成長率을 示顯하고 있으므로(1950~55年의 極東諸國의 年間 平均成長率은 2.4%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成長率下에서 北美의 現國民所得水準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146年이 所要되고, 先進諸國의 現水準에 到達하기 까지 119年이 必要하다는 推計가 나온다⁽⁹⁾.

이와 같은 事實은 所得面에서 考察하더라도 1955年~1960年에 成就한 年間 所得成長率 1.8%로서는 北美의 現所得 水準에는 189年이, 先進諸國의 現水準에는 158年이 所要된다는 推計가 나온다⁽¹⁰⁾.

i) 也域에서는 比較的 빠른 成長率을 보이고 있는 自由中國, 韓國, 泰國等 諸國과 같이 年間 4% 以上의 成長率을 보이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도, 北美의 現水準에는 89年, 先進諸國에는 73年이 所要된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러한 「에카페」地域內諸國과 先進國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갭」을 메우기 위하여서는 技術革新等 生產性의 增加뿐만 아니라 莫大한 人口增加를 抑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 地域의 1964 年度 國民 1人當 年間所得을 보면⁽¹²⁾, 平均 445弗이며, 가장 높은 國家는 「보르네」의 1,177弗이며, 「버마」 및 「네팔」의 67弗이 最低이고, 韓國은 112弗이다. 大陸別 所得을 보아도 亞細亞地域이 世界에서 가장 貧困한 地域으로 低所得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즉 亞細亞는 世界平均 所得 445弗의 約5分의 1에 不過한 低所得임을 알 수 있다.

◆ 大陸別 年間 1人當 所得 (1964)

大 陸 別	1人當 所得	大 陸 別	1人當 所得	
北 大 歐	美 洲 羅 巴	1,820弗 960 580	南 亞 亞 細 亞	265 135 90
世 界 平 均		445	韓 國	112

이와 같은 貧困狀態로 부터 脱皮하기 위해서는 人口 增加를 抑制함과 同時に 工業化를 推進하되 生產資源을 農業으로부터 工業으로 轉移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¹⁴⁾.

四. 工業生產

(9)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5*, op. cit., p. 7.

(10) *Ibid.*, p. 8.

(11) *Loc. cit.*

(12) *Asian Industrial Development News*, No. 2, 1967, U.N., pp. 46~47.

(13) Villard, *Economic Development*, op. cit., p. 31.

(14) 崔鍾起, 「[에카페]地域의 經濟協力問題에 關한 小考」, 海外問題, 第3輯(1967. 2), p. 16.

亞細亞地域이 世界 工業 生產面에서 차지하는 比重은⁽¹⁵⁾ 5.5%이며, 「에카페」地域內의 發展途上에 있는 諸國은 1.7%이고, 日本은 2.7%이다. 즉 「에카페」地域內의 發展途上諸國이 차지하는 工業面의 比重은 國際社會에서 가장 低調하며, 南美 3.0%, 「아프리카」는 2.0%이다.

이러한 亞細亞의 落後된 經濟構造는 前述한 바와 같이 從屬經濟인 植民地經濟의 遺產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植民地本國의 欲求에 의한 政策에서 全面的인 從屬化로, 植民地本國 工業을 위한 原料供給源으로서 從屬化되었기 때문이다. 原住民의 傳統的 生產樣式과 急激한 人口增加는 그린 속에서 食糧不足을 招來하였으며, 宗主國의 經濟的 利益에 對應하는 特定의 1次產品의 特化生產 및 輸出에 1國의 經濟가 依存하는 形態를 取하게 되었다.⁽¹⁶⁾

◇ 亞細亞의 單一輸出品이 全體輸出
高에 占하는 比率(1957~1959年 平均)

씨 톤.....茶.....62%
파키스탄... 쥬드 ...58
벼 마.....쌀.....73
越 南... 고무 ...62
泰 國.....쌀.....42

또한 亞細亞諸國의 經濟內部 相互間에서는 그產物이 相互 競爭의이며, 相互 补完關係가 낫다. 亞細亞經濟의 發展段階는 낫으며, 低生產性으로 少數의 特產物 輸出과 交換으로 必須 工業製品을 輸入하며, 自立性과 自給性을 缺하고 있다.

亞細亞의 工業生產은 大體로 國內需要充足을 目標로 하며, 傳統的으로 農村의 手工業은 農村內部에 있어서의 需要에 對應하기 위해 營爲되어 왔다. 그規模는, 國내에 擴大되는데 이로는 形態가 一般的이었으며, 外國으로부터 輸入에 依存하던 消費財商品을 國內工業製品에 의하여 代替되는 것이 工業化에 있어서 重要한 目的이 되었다.

「에카페」地域內에서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로써 急速한 工業發展을 이루한 國家는 自由中國, 「파키스탄」 및 韓國이다⁽¹⁷⁾. 1958年을 100으로 하면, 1964年末 自由中國은 212로, 1963年보다 20% 成長을 이루었다. 自由中國 및 日本은 1958年부터 1964年까지 每年平均 14%의 成長率을 보였으며, 「파키스탄」의 工業生產 指數는 1963年末 現在 171이며, 每年 12%의 成長率을 示顯하였고, 1964年 韓國은 工業生產의 指數는 189%로 每年 11%의 工業生產面의 成長率을 보였다. 餘他 亞細亞諸國의 工業成長率은 前記 3個國보다 低調였다. 三個 國家의 成長率은 다음과 같다⁽¹⁸⁾.

(15) *Industrial Development: Asia and the Far East*, Vol. I, U.N., 1966, p. 2.

(16) *An 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Y 1961, A Summary Presentation*, June 1961,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205, 1961, p. 21.

崔鍾起, 國際關係論, 서울博英社, p. 62.

(17) *Industrial Development: Asia and the Far East*, Vol. I, op. cit., p. 9.

(18) *Ibid.*, p. 11.

◇ 「에 카페」地域의 工業 및 年間 製造生產의 增加率 (1952~1954 年과 1961~1963 年)

國 家 名	工 業	製 造	國 家 名	工 業	製 造
外 國	5.2%	5.0%	比 律 賓	—	8.9
自 手 中 國	11.0	11.5	日 本	14.1	15.0
印 度	7.4	7.0	潔 洲	—	5.6
韓 國	14.0	12.6	뉴 지 랜 드	—	5.7
파 캐 스 탄	12.7	12.9			

亞細亞諸國의 工業構造는 規模的으로 中小企業이 많았으며, 生產 内容에서는 消費財工業이支配的이 라는 後進的 性格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즉 資本의 稀少, 技術의 落後性 및 市場의 狹少等을 들 수 있으며, 根源의 으로는 過剩人口, 零細한 土地所有와 負債, 農業에 있어서 労動生產性의 低調 및 所得의 低位等 一聯의 惡循環을 背景으로 하는 것이다⁽¹⁹⁾.

三：經濟協力上 問題點

「에 카페」諸國이 當面하고 있는 몇가지 隘路點을 들어 보면, 通商 構造面에서 보아 輸出이 지나치게 1次商品에 偏重되어 있으며, 消費財需要의 大部分과 工業開發에 必要한 設備 및 原料는 大部分을 輸入하는 代身에, 主로 1次商品을 輸出하고 있다. 즉 1960年 天然「고무」는 9億6,900萬弗, 茶는 4億5,500萬弗, 植物性油類 3億2,600萬弗, 砂糖 1億9,900萬弗 및 주석은 1億7,900萬弗을 輸出 하였는데, 이에 對한 國際社會의 需要是 漸次 下落하는 傾向에 있다. 1960年에서 1975年 사이에 先進諸國의 國民總生產高는 80% 增加할 것인데, 이들 諸國이 「에 카페」諸地域 으로 부터 輸入하는 1次商品의 需要是 36%가 增加할 것이豫想되며, 그外는 南美, 「아프리카」 및 中東地域에서 充當하게 될 것이다⁽²⁰⁾.

近소에 이르러 「에 카페」諸國은 經濟開發, 工業化를 國家의 至上目標로 하고 있는데⁽²¹⁾, 이와같이 이地域의 經濟開發을 刺戟한 重要한 要因의 하나는 亞細亞諸國이 政治的 獨立을 達成 하였다는 事實이다. 政治的 獨立은 強力한 統合力を 必要로 하며, 이것은 民族主義의 強力한 追求로서 나타난다. 民族主義는 그것이 後進性의 脫皮라는 當面課題와 결부될 때는 民族의 個性의 承認이나 文化的 遺產에 對한 자랑 以上의 것을 包含하며, 그結果 民族主義의 內容에는 經濟的 進步, 社會的 福祉 및 近代化等의 理想 實現에 對한 約束을 包含하게 된다⁽²²⁾. 「에 카페」地域은 種族, 言語, 文化 및 慣習의 形態에 있어서 統一性보다는 多樣性을

(19) 原 覚天, 現代アジア經濟論, 東京, 勤草書房, 1967, p. 53.

(20) Bela Balassa, *Trade Prosp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Homewood, Richard D. Irwin., 1964, Table A 3.1.2.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and the Far East: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rade Liberalization, U.N., 1965, p. 96.

(21) *Economic Development and Planning in Asia and the Far East Conference of Asian Economic Planners (Second Session)*,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Vol. XV, No. 3, Dec. 1964, U.N., pp. 2~5.

(22) 崔鍾起, 前揭論文, p. 17.

더욱 지닌다. 「에 카페」地域內의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들은,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資本 및 技術의 不足에 直面하여, 孤立的으로는 計劃目的을 成功的으로 實現시킬 수 없는 關係上, 外部의 援助 또는 協調가 必要하게 되며, 特히 域內諸國사이의 協調는 이 地域 發展의 關鍵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에 카페」地域內 諸國사이의 協力의 必要性이 增大된 것이다⁽²³⁾.

III. 亞細亞地域의 貿易

一. 世界貿易中 亞細亞의 位置

「에 카페」地域의 輸出은 1950年代의 後半期보다 1960年代의 前半期가 보다 急速한 成長을 示顯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에 카페」地域內의 發展된 國家의 急速한 輸出의 擴大에 基因한 것으로,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의 輸出은 훨씬 低調한 편이다. 「에 카페」地域의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의 1960年~1965年間의 輸出實績은 年間 4.7%의 成長率인데 比하여, 發展된 國家의 年間 成長率은 12%를 示顯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⁴⁾. 「에 카페」地域의 輸出成長率은 다른 發展途上에 있는 地域보다 低調하다. 즉 「아프리카」 및 中東地域은 7.5%이고, 南美地域은 5.3%이다. 「에 카페」地域과 世界의 貿易을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世界와 「에 카페」地域
貿易의 年間 成長率 1955~65. (單位 : %)

區 分 地 域	1955~60		1960~65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에 카페(全體)	5.4	7.2	8.5	7.4
發展途上 「에 카페」諸國	3.3	6.6	4.7	4.9
發展된 「에 카페」諸國	8.9	8.0	12.5	10.4
世 界				
發展途上 國家(全體)	2.9	2.3	5.9	4.3
發展國家(全體)	7.2	6.5	5.1	8.9
아프리카 및 中東	4.8	4.9	7.5	5.3
南 美	1.5	2.2	5.3	2.9

世界貿易面에서 볼 때, 「에 카페」地域의 輸・出入은 1960年以來 大略 같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에 카페」地域의 發展途上에 있는 諸國이 世界 貿易面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55年的 輸出 比重이 8.6%이던 것이 1965年에는 6.5%로 下落하였으며, 輸入面에 있어서도 同期間中 8.5%이던 것이 7.6%로 下落하였다. 이것은 發展途上에 있는 「에 카페」地域 諸國이 世界 貿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下落하는 傾向에 있는 것이다⁽²⁵⁾.

(23)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and the Far East*, U.N., 1964, pp. 1~5, 53~57.

(24)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op. cit., p. 157.

(25) *Ibid.*, p. 1~7.

全般的으로 發展途上에 있는 「에 카페」地域 國家는 1964年보다 1965年에는 輸出이 6.8%가 增加되었는데, 그것은 주석, 「코푸라」, 및 「주드」와 같은 主要產物에 對한 輸出價格이 引上되었던 것에 基因되는 것이라 하겠다. 輸入面을 보면, 1965年에 9.2%가 增加된 것은 資本에 對한 強力한 需要에 의한 것이었다. 結果로 貿易의 赤字는 25億弗에 이르고 있다⁽²⁶⁾.

特に 「에 카페」地域의 1960~1965年의 輸出 成長率을 보면⁽²⁷⁾, 韓國, 馬來, 「파키스탄」, 「사바」, 香港 및 「라오스」는 急速한 輸出成長을 示顯하고 있다. 反面에 1965年 越南은 稗과 天然「고무」의 輸出의 減少와 戰爭等 災害로 25%의 輸出減少를 招來하였으며, 「벼마」는 稗의 生產이 不振으로 1965年的 輸出은 5.4%로 下落하였고, 印度는 茶 輸出의 減少로 輸出面에 3.7%의 下落을 각各 招來하였다.

◇ 1960-65年의 年間 輸出成長率

	國家名	成長率(%)		國家名	成長率(%)
10%以上 ~10%	韓國	39.6	0~5% 否 定	印 度	4.8
	自由中國	22.4		西 馬 來	3.6
	香 港	10.6		라 오 스	2.1
	이 란	9.1		씨 룬	1.2
	泰 國	9.0		벼 마	不變
	캄 보 디 아	8.5		사 라 와 크	-2.3
	아프카니스탄	7.0		싱 가 플	-3.0
	사 바	6.5		西 사 모 아	-3.1
	比 律 賓	6.5		印 尼	-3.4
	파 키 스 탄	6.2		보 루 베	-5.0
				越 南	-19.0

「에 카페」地域의 貿易量은 每年 增加는 하고 있으나, 그 增加의 速度는 그리 크지 못하다. 特히 輸出의 成長이 적다는 것이 特徵의이라 하겠다. 先進工業國間의 貿易의 成長이 急速度로 增加되고 있음에 比하여, 「에 카페」地域의 發展途上에 있는 諸國의 貿易의伸長은 緩慢하고 輸出이 있어서 顯著하다. 그것은 發展途上에 있는 諸國의 經濟開發의 緩慢한 進展, 이들 諸國의 1次產品의 價格의 低落 傾向,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르는 特定의 1次產品에 對한 代替品의 出現等을 들 수 있다. 大部分의 「에 카페」地域의 諸國은 少數의 1次產品은 그 나라의 輸出의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貿易의 相對國은 稗을 除外한 1次產品을 先進國에 輸出하고 있다. 稗은 國際商品이나, 고무, 주석, 「커피」等의 世界商品에 比하여, 그 普遍性이 적으며, 主로 亞細亞地域의 米食文化圈이라는 限定된範圍에서 移動하고 있다⁽²⁸⁾.

(26) *Ibid.*, p. 158.

(27) *Loc. cit.*

(28) *Ibid.*, p. 175. 1960—1965年間 發展途上의 「에 카페」諸國은 地域에 全體의 稗 輸出하고 있다.

東南亞諸國의 輸入面을 보면, 印尼, 馬來, 「싱가풀」, 「라오스」諸國이 糜을 中心으로 하는 食糧을 泰國, 「ベマ」等에서 輸入하는 外에 纖維製品, 金屬製品, 化學製品 等의 消費財 및 機械 等의 資本財 및 一部分의 工業原料를 歐美·日本의 先進國에서 輸入하는 構造를 갖고 있다. 泰國 之外의 東南亞諸國에 對하여 舊宗主國은 각각 하나의 重要한 輸入國이 되어 있다.

二. 亞細亞貿易의 特徵

亞細亞의 貿易構造의 特徵의 하나로서 들 수 있는 것은 第1次產品의 輸出과 第2次產品의 輸入을 들 수 있다. 近來에는 經濟開發計劃遂行을 위해서 資本財 輸入은 더욱 커지고 있다.

國際社會에서 1960年 發展途上諸國이 先進諸國에 輸出하는 產物價格은 195億弗로서, 그中 石油 및 石油產物 等이 가장 큰 單一商品群 으로서 4分의 1인 51億弗를 占하였다. 이中の 過半數 以上은 1960年 西歐에 108億弗 輸出되었으며, 3分의 1인 66億弗이 美國과 「카나다」에 輸出되고, 日本과 大洋洲 및 南阿가 10%를 輸入하고 있다. 亞細亞는 44億弗을 輸出하였는데, 그中 貢產物과 「주드」 및 「고무」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보면, 低開發諸國이 先進國에 輸出하는 規模를 1960年 價格으로, 1960年에 195億弗, 1970年에 291億弗, 1975年에 360億弗로 增加될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³⁰⁾.

「에 카페」地域의, 發展途上諸國의 1960~1965年間의 輸出은 年間 4.7%의 成長率에 比하여, 輸入은 4.9%의 成長率을 示顯하고 있다. 貿易의 「gap」은 이地域의 여러 나라에서는 漸次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緩慢한 輸出의 成長率과 많은 輸入需要의 反映으로 因한 것이다. 1964年부터 1965年에는 「에 카페」地域의 貿易은 入超 31億6,800萬弗에서 26億8,700萬弗(印尼除外)을 뚫고, 發展途上의 「에 카페」諸國의 入超는 25億弗(印尼除外)에 이른다. 다만 發展途上의 「에 카페」諸國中 「이란」, 馬來 및 「보르네」는 1960年以來 貿易面에서 出超를 示顯하고 있다. 發展途上의 「에 카페」諸國의 貿易面의 入超는 그 80%를 印度, 「파키스탄」 및 香港이 차지하고 있다. 印度는 1964年에 6億8,700萬弗의 入超를 나타냈던 것이 1965年에는 11億3,400萬弗의 入超를 보였다. 「씨론」은 1964年에는 入超였던 것이, 1965年에는 輸入의 抑制로 9,100萬弗의 出超를 이루고 있으며, 自由中國은 輸出 砂糖價格의 下落으로 1億600萬弗의 入超를 示顯하고 있다⁽³¹⁾.

發展途上의 「에 카페」地域諸國의 輸入은 繼續 增加되고 있다⁽³²⁾.

(29) Balassa, *Trade Prosp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op. cit., p. 43.

(30) Ibid., p. 44.

(31)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op. cit., p. 163.

(32) Ibid., p. 157.

◇ 輸入能力(1960~1966)

(1958=100)

國家名	1960	1965	國家名	1960	1965
外 韓	105	110	越 南	163	70
自由中國	84	185	發展途上의 [에카페]諸國(全)	118	141
日 度	112	135	東 洲	116	159
西 馬 來	155	178	日 本	146	296
比 律 資	110	133	뉴지랜드	120	154
泰 國	134	204			

亞細亞諸國의 貿易에 있어서 商品構成의 가장 큰 基本的 特徵은, 輸出에서는 限定된 1次產品이 依存하여, 輸入에서는 國內產業의 未發達로 消費財를 中心으로 하는 製品輸入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높다. 亞細亞 低開發諸國의 輸出構成의 變化를 보면 다음과 같다⁽³³⁾.

◇ 亞細亞 低開發諸國의 輸出構成의 變化

單位：百萬弗

國 家 名	分 區	1959年			1963~64年		
		農產物輸出 A	輸出總額 B	B에 A의 % 對 한	農產物輸出 A	輸出總額 B	B에 A의 % 對 한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211	224	94.2	257	271	94.8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59	60	98.0	60	88	68.2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350	368	95.1	353	364	97.0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123	157	78.3	210	443	47.0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599	1,329	45.1	763	1,665	45.8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232	321	72.3	313	416	75.2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463	530	87.3	640	728	87.9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316	558	88.2	356	469	75.9
印 度 尼 泊 羅 巴 基 斯 坦 孟 加 拉 新 加 坡 泰 國 越 南	東 南 亞 洲	71	75	94.7	70	77	90.9
計		2,426	3,423	70.8	3,022	3,522	66.8

三、輸出構造

輸出全體에서 占하는 農產物의 比率은, 1959年的 全體 平均 70.8%에서 1963~64年에는 66.8%로 變化를 보이고 있으나, 工業製品 中心으로 輸出構造의 轉換에 成功한 나라는 自由中國 뿐이며, 同國의 農產物의 輸出은 絶對額에서는 相當이 增加되었으나, 輸出 全體에 對한 比率은 1959年的 78.3%로부터 1964年에는 47%로 低下되었다. 또한 亞細亞 低開發諸國의 輸出商品別 構成은 다음과 같다⁽³⁴⁾.

亞細亞諸國의 輸出이 當面하고 있는 主要한 問題는, (1) 1次產品의 輸出의 展望이 悲觀的이고, 製品과의 相對的인 關係에서는 成長率은 낮으나 絶對量은 增加하고 있으며, 輸出商品의 多邊化와 技術改善에 의한 輸出을 擴大하는 것에 對한 可能性의 問題와, (2) 數年來

(33) 原覺天, 前掲書, p. 98.

(34) 上同, p. 99.

◇ 亞細亞低開發諸國의 輸出商品別構成(%)

年度	品別	食糧	原 料	燃 料	化學製品	機 械	其他工業製品
1955		32.4	29.4	24.9	1.0	0.5	11.3
1956		32.1	28.2	25.9	0.9	0.5	11.7
1957		32.4	26.9	27.5	0.9	0.6	11.0
1958		33.0	25.1	30.0	0.9	0.6	9.8
1959		30.4	27.9	28.6	0.9	0.6	11.1
1960		29.5	27.9	30.0	1.0	0.7	12.2
1961		29.1	26.7	29.3	1.2	0.8	12.4
1962		29.2	25.3	30.4	1.2	0.9	12.5
1963		29.8	24.3	30.2	1.2	0.9	13.1

繼續的인 1次產品輸出 價格의 低下問題와 (3) 國際需要의 變動에서 받는 不安定性의 問題를 如何히 除去 積減하느냐 하는 것이다. 1次產品의 價格은 工業製品에 比하여 더욱 不利하여지는 것은, 亞細亞諸國의 實質的 購買力이 低下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³⁵⁾.

그런데 最近 「에 카페」地域의 諸國은 製品 및 半製品의 輸出의 必要性이 높은 優先順位를 차지 하므로서, 工業化 段階에 到達하였다는 징조가 높아 가고 있다⁽³⁶⁾. 1964年 「에 카페」地域諸國의 製品輸出이 全體 輸出高에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 製品의 輸出, 1964.

國 家	I 分	總輸出에 對한 製品의 %	製品의 輸出高 (單位: 1,000弗)	全體輸出高
○ 發展途上의 「에 카페」				
香 港(國內生產)		92.7	717,905	774,833
韓 國		49.2	58,363	118,650
印 度		45.5	784,497	1,725,441
自 由 中 國		39.5	171,404	433,806
성 가 폴		35.5	321,126	905,473
파 키 스 탄		31.2	154,034	493,906
馬 來		28.2	305,617	1,084,182
西 馬 來		32.9	(298,998)	(908,436)
사 바		(5.7)	(4,798)	(84,866)
사 라 와 크		(2.0)	(1,821)	(90,880)
아 프 카 니 탄		12.9	9,103	70,685
라 오 스		6.2	55	889
比 律		6.1	42,485	739,954
이 란		3.5	44,472	1,253,528
泰 國		2.7	15,622	574,924

(35) 上同, p. 10.

(36) *Asian Industrial Development News*, No. 2, 1967, *op. cit.*, p. 4.

(37) *Ibid.*, p. 5.

西	사	보	아	2.1	147	6,926
씨			론	1.2	4,805	386,730
越			南	0.8	408	48,460
캄	보	디	아	0.6	509	87,520
보	르		네	0.1	25	59,414
計	發	展途上의 「에	카페」諸國	30.0	2,633,577	8,765,321
○	發	展된 「에 카페」地域				
日	本			91.6	6,112,164	6,673,728
濱	洲			16.5	500,234	3,036,041
뉴	지	란	드	4.5	47,700	1,065,172
計	發	展된 「에 카페」地域		61.8	6,660,098	10,774,941

이것을 보면, 發展途上의 「에 카페」地域의 製品輸出의 比重이 全體 輸出中 30%를 占하는 데 比하여, 發展된 「에 카페」地域諸國은 61.8%가 製品輸出이 占하고 있다. 特히 日本의 總輸出中 91.6%가 製品輸出임을 알 수 있다.

E. 輸入構造

亞細亞諸國의 輸入에 있어서 商品構成의 特徵은, 第2次大戰前에는 消費財가 中心을 이루었는 데, 그것은 오랜 植民政策의 歷史 속에서 工業化를 不可能하게 만든 要因이었다. 戰後에 獨立한 이룩한 各國은 工業化 計劃을樹立하여 그 實施를 遂行中이나, 輸入構造面에서 큰 變革을 이룩할 수 있는 急速한 效果는 갖어오지 못하였다. 亞細亞低開發諸國의 輸入商品構成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 亞細亞低開發諸國의 輸入商品構成 (%)

年 度	商 品	消 費 財		主로 消費財 위한 原料	主로 資本財 위한 原料	資 本 財
		食 糧	其 他			
1958		21.7	18.6	21.5	11.2	27.0
1959		18.8	17.5	24.2	11.4	28.1
1960		17.6	17.4	23.9	10.1	31.0
1961		16.7	17.7	24.4	9.6	31.4
1962		15.9	16.4	26.0	8.9	32.8
1963		18.1	15.6	24.0	8.8	33.5
1964		18.5	15.1	23.3	8.3	34.8

輸入全體에서 占하는 資本財의 比率은 1958年的 27%에서, 1964年に 35%로 增加하였는데 比하여, 消費財의 輸入比率은 40.4%로 부터 33%로 減少하고 있다.

1960년부터 1964년間의 輸入構成面에서 年間 成長率을 보면, 消費財中 食糧이 5.4%, 其他가 0.5%, 消費財 위한原料는 3.5%, 資本財 위한原料는 -0.7%, 그리고 資本財는 가장

(38) U.N., *Review of Development in Trade and Trade Policies in the ECAFE Countries*, 1966, Table 9,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op. cit., p. 170.

높은 7.1%를 각각 示顯하고 있다⁽³⁹⁾.

여기서, (1) 工業用消費財의 成長과 輸入은 非食糧消費財의 減少를 不可避하게 하는 同時에 消費財를 위한 原料의 輸入增加를 必要하게 만들고 있다. 鐵과 鐵鋼, 「씨멘트」의 國內生產의 增加는 資本財에 對한 原料의 輸入을 減少시키는 것이 되며, (2) 資本財의 制限된 國內生產에 의한 工業化過程은 그들의 資本財의 輸入을 增加시키는 必要性을 招來하였다.

「에카페」地域의 食糧輸入은 每年 流動的이며, 輸入國의 國內生產에 의하여 크게 左右된다. 「씨론」, 印度, 西馬來 및 比律賓等은 日氣事情으로 1963年以來 쌀 輸入이 增加되고 있다. 發展途上의 「에카페」地域의 諸國은 1962年에 22% 增加된 14億 8,800萬弗을 輸入하였으며, 1963年에 18億 2,100萬弗로, 1964年에는 다시 6%의 輸入增加를 招來하였다⁽⁴⁰⁾. 印度는 1965年 食糧輸入은 1964年보다 71% 增加되었으며, 「씨론」은 1964年에는 60%까지 增加되었으나 1965年에는 41%로 下落하였고, 日本의 食糧輸入은 每年 49% 增加하였는데, 1962年에서 1964年까지는 27%로부터 6.7%에 이르렀다.

食糧以外의 消費財 輸入의 比重은, 印尼, 「사바」 및 「사라와크」를 除外하고는 下落하였다. 1964年 「캄보디아」는 43%, 「라오스」는 38%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反面에, 自由中國, 印度, 韓國 및 「파키스탄」의 消費財工業은 發展을 거듭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이들 諸國은 消費財 위한 原料輸入의 比重이 높았으며, 特히 1965年 韓國은 57%, 自由中國은 1964年 43%를 각각 載入하였으며, 日本은 44%의 比重을 차지하였다⁽⁴¹⁾.

資本財의 全輸入面의 比重은 가장 높은 것은 「파키스탄」의 48.0%(1963年), 印度 45.3% (1965年), 比律賓 43.8%(1965年) 및 泰國은 43.3%(1964年)이고, 日本은 가장 낮은 11.5% (1964年)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資本財를 위한 原料輸入은 1964年의 全體 輸入面의 24.4%를 占하고 있다⁽⁴²⁾.

亞細亞低開發諸國은 工業化에의 努力과 이에 따르는 生產의 多樣化, 나아가서는 輸出入의 多樣化가 遅速의 差는 있을 망정 큰 變化의 길에 오르고 있는 것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代替產業에서 輸出商品으로서 國際競爭力を 갖기 위하여서는 製品의 高度化를 必要로 하며, 따라서 資本, 技術의 不足을 如何히 克服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즉 經濟를 高度化함으로서 生產이 可能하게 된 새로운 商品에 對하여, 品質과 價格面에서 改善을 行하고, 輸出競爭力を 增大하고, 새로운 分野의 輸出商品을 만들어 輸出額을擴大하여 가는 것이 必要하며, 그러기 위하여 亞細亞諸國間의 經濟開發 實現을 위한 相互間의 協力이 要望되는 것이다.

五. 域內貿易 規模

「에카페」地域의 地域內貿易의 比重은 1960年以來 輸出은 34%에서 35%로, 輸入은 31%

(39)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ibid.*, p. 170.

(40) *Loc. cit.*

(41) *Ibid.*, pp. 170~171.

(42) *Ibid.*, p. 71.

에서 3%로 增加되었다. 이와 같은 比率은 「아프리카」, 中東 및 南美地域 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歐羅巴共同市場은 1960 年 輸出이 34.5%였던 것이 1964 年에 43.2%로 增加된 것을 알 수 있다⁽⁴³⁾.

「에·카페」地域의 地域內貿易은 1960 年以來 急速度로 增加됨을 示顯하고 있다. 1960~1965 年間의 年間 增加率은 輸出에 8.4%, 輸入에는 7.1%로, 이것은 1955~1960 年間의 輸出이 6.7% 輸出에 7.0%를 가르키고 있는 것을 볼 때, 域內貿易의 必要性이 增加됨을 알 수 있다.

「에·카페」地域의 地域內貿易은 發展途上에 있는 諸國과 先進國間의 貿易擴大이자 發展途上에 있는 「에·카페」諸國間의 貿易擴大는 아니다. 「에·카페」地域內의 發展途上國과 先進國間의 貿易은 1960~1965 年間의 輸出(發展途上國)은 9.4%, 輸入(發展途上國)은 9.8%로, 1955~1965 年間의 輸出 4.3%, 輸入 11.0%와 對比하여 볼 수 있다. 「에·카페」地域內의 發展途上 諸國間의 年間 貿易擴大率은 輸出에 0.8%, 輸入에 0.04%로 1955~1960 年의 輸出 4%, 輸入 5.3%보다는 低調하다⁽⁴⁴⁾.

◇ 「에·카페」地域의 地域內貿易 (1960~65)

	全體貿易의 %		年間增加率	
	1960	1965	1955~60	1960~65
에·카페 地域內 貿易	輸出 34.5 輸入 33.6	34.6 32.5	6.7 7.0	8.4 7.1
發展途上의 「에·카페」 地域諸國間의 貿易	輸出 24.3 輸入 25.4	20.6 19.6	4.0 5.3	0.8 0.04
「에·카페」地域內의 發展途上國과 先進國 間의 貿易	輸出 13.3 輸入 15.1	17.0 18.5	4.3 11.0	9.4 9.8

亞細亞 低開發諸國의 域內輸出은 大略 다음의 세 가지로 類別할 수 있다. (1) 고무, 주석, 石油 같은 農產原料 및 鎳物의 中繼貿易으로, 이러한 商品의 大部分은 原形 또는 加工한 形態로서 域外諸國에 輸出한다. (2) 食糧不足國(馬來, 「씨론」, 印度, 印尼 및 「파키스탄」)에 對한 食糧의 輸出(「urma」, 「캄보디아」, 泰國 및 越南)로, 域內貿易 比率은 比較的 높다. (3) 比較的 工業化한 諸國(自由中國, 香港, 印度)으로 부터 다른 域內低開發國에 對한 製造品의 輸出이다. 이 類型에 屬하는 貿易의 一部는 香港 및 「싱가폴」의 中繼貿易을 通하여 行하여지고 있다.

亞細亞各國의 全 「에·카페」地域에 對한 輸出比重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43) *Loc. cit.*

(44) *Ibid.*, pp. 171~172.

(45) *Ibid.*, p. 173.

◇ 각국의 全「에 카페」地域에 對한 輸出比重, (1960~65) 단위(%)

國 家 名	1 9 6 0 年	1 9 6 5 年	國 家 名	1 9 6 0 年	1 9 6 5 年
보 르 네	99.0	99.7	西 馬 來	26.5	28.3
베 마	70.3	67.9	東 사 바	77.3	93.5
캄 보 디 아	38.9	44.9	사 라 와 크	84.4	87.0
씨 론	22.5	23.0	파 키 스 탄	36.6	34.8
自由 中 國	73.5	61.1	比 律 賓	27.1	32.1
香 港	41.4	30.2	싱 가 폴	43.7	48.7
印 度	21.9	19.9	泰 國	61.0	65.6
印 尼	48.4	21.3	越 南	33.5	24.4
이 란	32.1	32.1	西 사 모 아	43.3	48.0
韓 國	75.1	48.4	濠 洲	32.4	39.2
라 오 스	96.8	100.0	日 本	34.9	32.2
馬 來			뉴 지 랜 드	7.5	12.4

여기서 보면, 韓國은 1960年 75.1%의 比重을 「에 카페」地域 輸出에 두었으나, 漸次 그比重이 줄어져 가고 있다. 즉 1961年에는 72.7%, 1962年 55.9%, 1963年 47.0%, 1964年에 54.6%, 1965年에는 48.4%를 示顯하고 있다. 「라오스」는 1960年에는 96.8%이던 것이 1965年에는 100%로 「에 카페」地域에 對한 輸出比重이 높음을 가르키고 있다. 「에 카페」地域에 對한 輸出比重이 增大된 國家는, 「보르네」「캄보디아」「씨론」「이란」「라오스」「西馬來」「東사바」「사라와크」「比律賓」「싱가폴」「泰國」「西사모아」「濠洲」「뉴지랜드」等 이다.

「에 카페」地域為의 諸國이 同地域의 低開發國에 輸出하는 比重을 보면, 韓國은 1960年에는 11.4%이던 것 1961年에 21.8%, 1962年 13.1%, 1963年 18.4%, 1964年 22.1%, 1965年에 23%로 上昇一路에 있다. 泰國은 1960年에 42.8%이던 것이 1965年에는 46.8%, 越南은 1960年에 30.9%, 1965年에는 13.9%를 각各示顯하고 있다⁽⁴⁶⁾.

亞細亞諸國은 5年 동안 繼續하여 輸出이 增加되고 있다. 1966年에는 7%, 1965年에는 4%, 1963年에 11%가 前年度에 比하여 각各增加되고 있다⁽⁴⁷⁾. 輸入은 1960年以來 1966年이 가장 높은 9%를 가르키고 있다⁽⁴⁸⁾.

亞細亞諸國이 「에 카페」地域內의 先進國에 輸出하는 比重을 보면, 韓國은 1960年에 63.7%, 1961年 50.9% 1962年 42.8%, 1963年 28.6%, 1964年 32.5%, 1965年에 25.4%를 示顯하고 있는데, 韓國의 「에 카페」地域內의 先進國에 對한 輸出比重은 漸次 低下하는 傾向에 있다⁽⁴⁹⁾.

(46) *Ibid.*, p. 174.

(47) *International Trade 1966, GATT-Report*, 1967, *op. cit.*, p. 249.

(48) *Ibid.*, p. 50.

(49)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op. cit.*, p. 174.

六. 各國主要輸出品目

亞細亞諸國의 各國別 主要 輸出品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國名	品名
日本	魚類, 綿布, 紗絲, 毛織物, 衣類, 化學肥料, 合成纖維, 鐵鋼製品, 電氣用具, 機械類, 器具 및 船舶.
中共	食糧, 茶, 石炭, 金屬鑛石, 纖維, 鐵鋼製品, 機械.
印度	茶, 紡織物, 주드製品, 皮革製品, 金屬鑛石, 鐵鋼製品, 機械.
澳洲	毛, 바터, 皮革, 皮革製品, 金屬製品, 化學品, 製紙, 機械, 電氣器具.
뉴저랜드	毛, 肉類, 바터, 치즈.
自由中國	砂糖, 瓦, 茶, 씨멘트, 石炭, 鋼鐵製品, 알비늄製品.
香港	木綿織物, 衣類, 슬리퍼, 家具, 機具, 機械.
比利賓	砂糖, 코코넛, 담배, 果實, 毛, 製紙, 木棉纖維, 金屬製品, 機械.
其他低開發國	고무, 주석, 瓦, 茶, 砂糖, 木棉, 주드, 石油, 코코넛 等

以上과 같은 亞細亞諸國의 輸出品目的 大部分은 國際市場價格의 低廉한 1次產品의 大部分인 것이다.

工業分野에 있어서 亞細亞地域의 域內協力은 各國의 市場의 狹少하여, 工業化를 沮害시키고 있다. 1961年「에 카페」地域內의 低開發國의 工業製品 輸出(卑金屬類包含)은 40億弗이며, 그中 34%는 卑金屬類, 輕工業製品(特히 베니아合板등)은 29%, 織物 23%, 化工品 6%이다⁽⁵¹⁾.

亞細亞低開發國의 工業製品 輸出은 第1次產物에 比하여 아직도 적은 比重을 占하고 있다. 그러나 戰後 亞細亞低開發諸國에서는 第1次產物로부터 工業製品의 輸出로 轉換을 做하고 있다⁽⁵²⁾. 亞細亞諸國內의 大・小國間에 있어서 工業의 規模 및 構造 形態에 많은 差異를 갖고 있다⁽⁵³⁾.

亞細亞諸國의 第1次商品貿易의 困難性은, (1) 需要가 漸次 減退하고, 合成工業으로 代替物의 登場하고, (2) 狹少한 自由市場의 商品이라는 것이다. 즉 「고무」, 砂糖, 주석, 「코코넛」, 瓦, 編花등은 狹少한 自由市場에 屬하는 것으로, 'all도 亞細亞市場에 限定된 自由商品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3) 亞細亞地域은 人口過剩國 또는 人口成長의 큰 國家등이 많다. 이러한 特徵으로 亞細亞諸國의 第1次生產物 貿易의 顯著한 困難性을 지니는 要因으로, 이의 解決策으로서 亞細亞 全體의 廣域的 工業化, 相互間의 特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⁵⁴⁾.

(50) Alfred K. Ho, *The Far East in World Trade*, New York, 1967, pp. 10~12.

(51) *Asian Industrial Development News*, No. 2, 1967, *op. cit.*, p. 15.

(52) *'bid.'*, p. 16.

(53) *'bid.'*, p. 47.

(54) 小島 清, 低開發國の 貿易, 東京, 國元書房, 1964, p. 138.

七. 韓國經濟의 域內依存度

韓國의 第1次 5個年計劃의 產業別 附加價值의 成長을 보면, 2次產業은 年平均 17.0%로 쑈, 全體 成長率은 先導했고 構成比 24.8%로 쑈 1962年の 20.4%에 比하여 着實한 質的 成長을 이룩하였다⁽⁵⁵⁾.

輸出構造에 以어서도 2億 5千萬弗을 達成한 1966年の 商品構造를 보면 工產品은 그 比重이 漸次 增加되어 1962年の 27%에 比하여, 1963年に 51.7%, 1965年に 62.3%, 1966年に 62.4%의 構成比를 나타내어 後進의 貿易構造의 脫皮에 큰 進展을 엿 볼 수 있다.

1966年末 現在 韓國의 對東南亞貿易의 依存度를 分析해 보면⁽⁵⁶⁾, 輸出에 있어서는 41.8%, 輸入에 있어서는 53.3%를 占하고 있다. 韓國의 各國別 輸出實績을 보면 日本은 27.4%이며 다음이 越南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輸入에 있어서는 日本이 亦是 32%로 쑈 最高를 占하고 있으며, 比律賓이 9.1%로 쑈 다음, 位置를 占하고 있다. 東南亞各國이 總輸出額中 韓國에 對한 輸出 比重을 보면 日本이 2.3%, 比律賓이 2.5%, 自由中國이 2.0%이며, 輸入에 있어서는 日本이 自國 總輸入額中 韓國으로부터의 輸入額은 0.7%에 不過하며, 越南이 4.0%로 쑈 最高를 占하고 있다.

◇ 東南亞各國 貿易依存度 (%)

國家名	區分	韓國의 東南亞 依存度		東南亞各國의 韓國에의 依存度	
		輸出	輸入	輸出	輸入
日	本	27.1	32.0	2.3	0.7
自	由 中 國	0.8	1.6	2.0	0.4
比	律 賓	0.3	9.1	2.5	0.07
泰	國	1.9	0.6	0.06	0.04
越	南	5.6	0.00	0.00	4.0
馬	來	0.2	0.00	0.1	0.00
香	港	4.0	1.1	0.00	0.6
싱 가	牙 雅	0.1	0.1	0.00	0.00
印	尼	0.00	0.00	0.00	0.00

특히 韓國이 「에카페」地域의 發展途上에 있는 諸國에 對한 域內貿易의 全體 輸出高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1960年に 11.4%이던 것이 1965年に 23%로 增進되는 傾向에 比하여, 「에카페」地域內의 發展된 諸國에 對한 韓國의 輸出比重은 1960年 63.7%이던 것이 1965年に 25.4%로, 漸次 그 比重이 줄어가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⁵⁷⁾.

韓國의 東南亞 各國과의 交易品目을 보면⁽⁵⁸⁾, 輸出品目은 오징어, 생선통조림, 사과, 김,

(55) 經濟調查, 經濟企劃院, 1967. 12, p. 17.

(56) IMF統計, 商工部

(57)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6*, op. cit., p. 174.

(58) 貿易振興公社의 資料.

韓國生產性本部 生產性研究所, “品目別 輸出費用分析과 有効輸出費用의 限界檢證”, 1967, pp. 19~31.

自動車附屬品, 「타이 야」, 「쥬브」, 人蔘, 纖維類, 재봉틀等이며, 輸入品으로서는 主로 1次產品으로써 原木, 「고무」, 植物性原材料, 原糖, 糖蜜, 香料, 藥材等이다.

◇ 「에 카페」地域內貿易, (1960~1965).

韓國의 輸出比重(%)

區 域 分 子	年 度	1 9 6 0	1 9 6 1	1 9 6 2	1 9 6 3	1 9 6 4	1 9 6 5
		發 送 途 上 國	11.4	21.8	13.1	18.4	22.1
	發 送 往 諸 國	63.7	50.9	42.8	28.6	32.5	25.4

◇ 韓國의 對東南亞 交易品

國家名	區分	輸 出	輸 入
自由中國		오징어, 사과, 김, 麥芽, 煙草, 人蔘, 漢藥材.	쌀, 果實, 菜蔬類, 敦糖, 糖蜜, 藥材, 香料, 潤潤油, 주리스, 人絹絲, 알미늄, 琉璃製品, 織物.
比 利 賓		滑石, 통조림, 오징어, 陶磁器, 洋軋, Auto-Parts	喬木, 麻織物, 動物性教材材料, 주리세린, 其他 化學材料.
泰 國		오징어, 絹織絲, 한천, 타이 야쥬브, 고무 스폰지, 橫造紙, 綿布. Triott Lace, 양말, 나이론絲, 타후다.	原糖, 糖蜜, 毛皮類, 金屬鑄, 植物性原材 料.
馬 來		葉煙草, 알미늄板, 滑石, 人蔘, Lace 자.	採油用種子, 天然고무, 合成고무, 生고무, 喬木 及 角木, 松木, 天然樹脂, 주리세린, 鑄錫, 化學元素, 香料.
越 南		滑石, 麥酒, 漢藥材, 한천, 탄산마그네슘, 씨엔트포데, 板琉璃, 鐵鋼棒, 亞鉛, 鐵板, Wire Rad, 디젤엔진, 織機類, 電線, 電氣 用具, Auto-Parts, 칠봉, 真鏽板, 裁縫機.	고무, 쌀, 茶.
印 尼		나이론織物, 輕編織物, 뼈스.	커피, 植物性原材料, 動物性原材料.

IV. 亞細亞의 經濟協力에 關한 努力

- 「에 카페」의 活動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 따라 經濟社會理事會는 1947年3月 歐羅巴經濟委員會(E.C.E.)와 「에 카페」를 設立하였다⁽⁵⁹⁾.

「에 카페」의 目的과 性格을 보면, 「亞細亞・極東의 經濟復興과 開發을 위한 協助的 行動을
容易하게 하며, 經濟活動의 水準을 높이이며, 地域内外의 諸國과의 經濟關係를 維持하도록 하
고 有之 것」이다.

(59) ECOSOC Res. 36 and 37(II), 28 March, 1947.

「에 카페」는 努力의 實踐으로 經濟調查, 統計, 計劃, 工業化를 위한 努力, 天然資源 開發, 內陸運輸, 國際貿易, 社會開發等 諸問題에 關한 協調를 담담하고 있다. 亞細亞地域에서 이와 같은 經濟的 地域화가 成熟된 理由를 들여 보면, (1) 戰後 各國間의 經濟關係가 密接하여 져서 이미 1國만으로서는 孤立하여 發展할 수 없게 되었으며, (2) 蘇聯을 中心으로 하는 社會主義 經濟의 擴大와 從前의 殖民地가 漸次 獨立을 獲得하고 工業化 및 交通手段의 發達에 의해 輸出市場이 점점 좁아진 結果, 各國은 서로 障壁을 撤廢하여 貿易等을 보다 活潑히 할 必要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技術의 發達이 이地域相互間의 貿易擴大를 必須的인 것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⁶⁰⁾.

技術革新의 結果, 大規模 生產이 可能하여 지므로 國內市場만으로는 製品을 消化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技術革新에 의해 原料 革命이 發生하여 先進國의 後進國에 對한 原料 消費는 增加되지 못하고, 貿易의 比重이 先進國 對 後進國의 貿易(南北貿易)에서 부터 先進國相互間의 貿易(東西貿易)으로 轉換되었기 때문이다.

二. 經濟協力의 利益과 努力

「에 카페」地域의 總貿易額에서 占하는 域內貿易의 比重이 적은 事實은, 「에 카페」地域의 相互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域內國家사이의 協助를 더욱 增進시킬 必要가 있다. 一般的으로 2個國以上 關係國 사이의 經濟協力에 의해서 增進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利點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⁶¹⁾

첫째로, 市場의 擴大에 의하여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의 利點을 充分히 獲得할 수 있다. 둘째, 域內產業 사이에 特化와 專門化가 이루워져, 專門化의 利點이 나타나며 特히 產業間의 系列化를 促進시켜 雇傭 增大를 期할 수 있다. 셋째, 經濟統合 또는 協力에 의해 國內產業의 生產性을 向上시킬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從前에는 幼稚產業(infant industry)이란 名目下에서 國家의 保護를 받아 溫室 속에서 安逸하게 자라던 產業들이 他國과의開放的인 競爭을直面하여 經營의 合理化等 生產性 增加에 努力할 수 밖에 없게 된 結果 國內產業의 生產性이 增加되고, 따라서 消費者들도 保護되는 것이다. 넷째, 輸出品의 單調性에서 나타나는 景氣의 沈滯와 變化를 經濟協力의 結果 나타난 輸出의 多樣化와 市場의 擴大에 의해서 除去할 수 있다. 다섯째, 「미드」(J.E. Meade)도 言及한 바와 같이 經濟的 統合은 他國 특히 先進國과의 交涉에 臨하여 統合國의 發言權을 強化시킨다.

이와 같은 經濟의 地域화의 움직임은 이미 西歐에서는相當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一地域의 經濟統合은 終極的으로는 그地域全體의 有機的인 統合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初期의 段階에는 반드시 全地域 혹은 全部門으로 試圖하는 것이 아니라, 特定分野에 限한 組織

(60) 崔鍾起, “「에 카페」地域의 經濟協力問題에 關한 小考”, 前揭論文, pp. 9~20.

(61) Trade Expansion and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Report by the Secretariat of UNCTAD, 2 Aug. 1966, pp. 7~17.

인 경우도 있다.

亞細亞經濟協力의構想은, 「에카페」의發足에 이어, 1951年「코롬보·프랜」(Colombo Plan)에서三 볼 수 있다. 즉 地域全體의 貧困과 未開發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廣範한 解決策을 講究하기 위한 解決策을 摸索하고 있다⁽⁶²⁾.

三. ASEAN 및 RCD

1947年以前에 있어서 亞細亞經濟協力에 關한構想은 거의 歐美先進國에 의한 것이었으며, 1959年頃부터 地域內에서의 要請이 漸次 높아 졌었다. 이러한構想의 發展을 背景으로 몇 나라가 小地域 水準의 經濟協力의 實施段階에 이르렀다. 1961年 馬來, 比律賓 및 泰國等 3個國에 의하여 東南亞聯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이 結成되었으며⁽⁶³⁾, 1967年8月「방콕」서 以上 3個國外에 印尼, 「싱가폴」이 參加한 5個國代表가 東南亞國家聯合(ASEAN)을 創設하였다. 이것은 經濟, 社會分野의 協力機構이다. 또한 亞細亞諸國은 各國의 開發計劃을 推進하는데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되는 資本調達을 위하여, 1965年 比律賓의 「다닐라」에서 亞細亞開發銀行(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設立에 合意하였다⁽⁶⁴⁾. 資本은 10億弗의 約 60%는 域內諸國의 出資에 의한 것으로, 亞細亞諸國의 經濟發展에 對한 資金面에서의 協力이 크게 期待되고 있다.

「에 카페」에서는 1960年의 第16次 總會에서 亞細亞諸國間의 여러 가지 協助를 發議하는 基礎上에 두도록 하는 한편, 地域內 貿易 및 工業發展을 위한 協調를 다짐하는 決議를 採擇하였다⁽⁶⁵⁾. 「에 카페」諸國間의 地域的인 協調를 위한 亞細亞經濟協力閣僚會議가 1963年 4月⁽⁶⁶⁾과 1965年 12月 두차례에 걸쳐 각각 開催되었다. 同閣僚會議에서는, (1) 「에 카페」地域加盟國은 經濟的 協調를 圖謀하기 위하여 個別으로나 或은 共同으로 協調努力할 것이며, (2) 地理的인 經濟協調는 加盟國相互間의 主權을 尊重하고,相互間의 援助와 利益의 增進을 圖謀하되, 「에 카페」地域內各國의 經濟的 發展段階가 서로 相異하다는 것과 地域外諸國과의 協調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나아가서 地域의 經濟協調를 다음에 指摘한 事項에 두도록 議決하였다. 즉,

(1) 「에 카페」地域諸國의 急速한 經濟的, 社會的 發展은 貿易, 工業, 農業, 交通 및 其他分野의 開發에 의하여 達成한다. (2) 域內貿易의 增進은 無差別待遇에 依據한 貿易自由化, 自由貿易地域의 擴大나 利害當事國間의 보다 細分된 地域間의 關稅同盟等에 의하여 達成시킨다. (3) 第1次生產物, 製品 및 半製品의 「에 카페」地域外에 對한 輸出 增大를 위한 適當

(62) H.J.P. Arnold,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Dnfour Edition, Chester Springs, Pennsylvania, 1962, pp. 81~82.

(63)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Vol. XVIII, No. 1, June 1967, p. 20.

(64)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rade Liberalization*, U.N., 1965, pp. 79~82.

(65) Resolution No. 31(XVI).

(66)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and the Far East*, U.N., 1964, *op. cit.*, p. 1.

한 措置를 取하되, 生產品의 質的 向上과 價值의 低下를 위한 努力を 傾注한다. (4) 地域內 혹은 細分된 地域에 있어서의 工業, 鎮業, 農業, 水產業等에 關해서 合意된 計劃 및 執行에 對한 調整을 위하서는 地域內에 發展되지 못한 諸國에 對한 注意의 喚起와 通商政策의 妥當한 措置로서 聲援한다. (5) 大洋間의 合理的인 荷物運送價格 및 路線에 對해서는 共同措置를 確立한다. (6) 地域內에서 生產되는 物資의 優先購買 및 地域內의 貿易增進을 위한 手段의 하나로서 可能한 限 政府購買를 促進한다. (7) 이외에도 地理的 經濟協調의 範疇 속에 드는 餘他의 措置도 取함으로서 地域內의 經濟發展과 安定을 圖謀하기 위한 諸努力를 傾注하도록 決議한 것이다⁽⁶⁷⁾.

또한 1964年 3月 「파키스탄」, 「이란」 및 土耳其 3個國間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地域協調(The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R.C.D.)를 다짐하는데 3個國 首腦는 合意하였다⁽⁶⁸⁾. 同合意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貿易協定의 締結로 物資의 自由스러운 移動, (2) 共同「프로젝트」의 執行 및 樹立, (3) 3個國間의 運輸 및 通信의 改善 즉 (i) 國內價格水準으로 郵便料의 節減, (ii) 共同航空路의 設置 및 地域內의 航空運輸面의 改善, (iii) 鐵道의 改善 및 建設과 道路의 接續增進, (iv) 共同海上航路의 設置를 비롯한 會議를 通한 調整에 의한 船舶分野의 緊密한 協調를 圖謀한다. (4) 地域內의 觀光增進과 查證制의 廢止, (5) 共同商工會議所를 指導하기 위한 既存商工會議所間의 緊密한 協調의 昂揚, (6) 專門家 및 訓練施設을 위한 相互間 技術援助의 提供等을 다짐하였다.

亞細亞大陸에 있어 地域的으로 隣接되어 있는 國家間의 貿易을 增進시킬 수 있도록 高速度道路를 開發할 必要가 提起되었으며, 이와 같은 提案은 1959年 3月 「에카페」에 의해 承認되었다. 이 亞細亞高速度道路(Asian Highway)計劃은 55,000「킬로미터」의 道路로서, 「이란」,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印度, 「씨론」, 「버마」, 泰國, 馬來, 「싱가풀」, 印尼, 「라오스」, 「캄보디아」, 및 越南을 通하도록 되어 있다. 1965年에는 閣僚級의 亞細亞高速度道路 調整委員會가 構成되어 5個年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이 道路網은 앞으로, 亞細亞諸國 사이의 協調 뿐만 아니라 地域內貿易의 增進에도 크게 寄與할 것이다⁽⁶⁹⁾. 歷史的으로 볼 때 亞細亞에 對한 西歐諸國의 영향은 海上을 通하여 吸收되었기 때문에 港灣과 그 周邊의 發達이 顯著하다. 따라서 道路建設이 重要한 意義를 갖는 地域은 西歐諸國의 영향이 크게 侵透하지 않은 地域 즉 後方地 帶라 할 수 있다. 内陸國인 「아프카니스탄」, 「라오스」 및 「네팔」에 있어서 亞細亞 高速度道路가 갖는 重要性이 크다 할 수 있다.

(67) *Ibid.*, pp. 1~3.

(68)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Vol. XVIII, No. 1, June 1967, *op. cit.*, p. 22.

(69) *Economic Survey of Asia and the Far East* 1965, *op. cit.*, p. 205.

Wightman *Toward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op. cit.*, pp. 215~221.

「에카페」事務局은 亞細亞 高速度道路를 物資뿐만 아니라 人間과 知識을 普及한 古代의 隊商道路나 近代的인 復活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에카페」地域에 있어서 國際交流가 希求되는 것은 域內國家사이의 經濟的 利益뿐만 아니라 그 結果로서 人間과 知識의 交流를 圖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⁷⁰⁾.

또한 「메콩」江下流(The lower Mekon Basin)⁽⁷¹⁾ 共同開發을 위한 努力으로서 「에카페」後援下에 地域的인 協調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泰國 및 越南에 의한 協調努力이 展開되고 있다.

이와 같은 Sub-Regional 「그룹」의 諸活動은 關係諸國間의 經濟的 統合을 增進시키기 위한 努力과 開發計劃의 調整을 追求하는 것으로, 地域內의 協調「무드」를 造成하는데 意義 깊은 役割을 帶는 것이다⁽⁷²⁾.

域內 貿易의 擴大에는 各國마다 큰 關心을 갖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크게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意識的 政策에 의한 障害로서, 「쿼터」制 및 關稅面에서 볼 수 있으며, 둘째로 政府의 行爲 및 非行爲가 貿易에 對한 二次的 혹은 偶然的으로 沮害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旅行手續의 複雜한 節次等은 實業人の 往來를 制限하며, 이것이 貿易 增進의 機會 發現을 沮害시키는 結果가 된다. 셋째는, 地理的 條件 및 經濟的 構造에 起因하는 障害로서 솔國의 運輸·通信體系는 舊宗主國과의 連絡을 主로 한 相互間의 補完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黑을 들 수 있다⁽⁷³⁾. 이와 같은 沮害要因을 域內諸國이 如何히 克服하느냐 하는 것으로 各國의 投資 및 生產計劃의 調整을 위한 協力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보다 緊密한 協調를 위한 努力이 期待된다.

V. 結語

歐羅巴共同市場의 發足은 各加盟國間의 經濟的 成長을 刮目하게 이룩하였다. 特히 域內貿易의 顯著한 增進을 볼 수 있다⁽⁷⁴⁾. 歐羅巴共同市場의 域內輸出의 比重을 發足前과 對比하여 보면 크게 成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共同市場 혹은 經濟統合을 必要로 하는 理由는, 合意的 國際分業과 相互間에 市場을 提供하고, 大規模의 經濟의 利益을 圖謀하는 것이다. 經濟統合의 定義를 明確하게 規定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70) Whightman, *ibid.*, p. 221.

(71) Annual Report of Mekong Development Committee, 1965, E/CN. 11/WRD/MKG/L. 159 E/CN. 1/714.

(72)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Vol. XVIII, No. 1, (June 1967,) *op. cit.*, p. 21.

(73) *ibid.*, pp. 14~15.

(74) Leon N. Lindberg, "Integration as a Source of Stress on the European Community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XX, No. 2, (Spring 1966,) p. 239.

◇ 歐羅巴 共同市場의 輸出價值(1964年)
(1958=100)

國 家 名	對 E E C	餘他 世 界	差 異
佛 蘭 西	305	137	168
西 獨	246	160	86
伊 太 利	375	187	188
벨지움·룩셈불크	254	124	130
和 蘭	243	137	106
E E C 合計	267	151	116

發展途上의 亞細亞諸國의 經濟的 成長을 促進시키는 經濟的 統合의 重要性은 큰 異論이 없다. 그러나 統合의 目標를 達成하는데 있어 그 方法 및 手段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慎重한 配慮가 있어야 한다. 經濟的 統合은 全世界 혹은 地域 또는 Sub-Regional(2個國間이라 할지라도)間의 統合으로 할지라도 資源의 效率의in 活用과 分業 및 專門化로 廣域市場을 通過한 對外經濟 및 對內的in 開發을 圖謀할 것이다⁽⁷⁵⁾.

亞細亞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가 實現될 수 있는 大市場이어야 한다. 所得水準이 높은 先進國에서는 5,000 萬名의 人口가 最低의 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市場은 人口數뿐만 아니라 購買力의 크기가 問題이므로, 低所得 水準의 亞細亞에서는, 그 몇倍의 人口를 갖는 市場이, 規模의 經濟를 實現할 수 있는 最少의 大市場일지 모른다⁽⁷⁶⁾. 規模의 經濟가 實現되고 合意의 國際分業이 가장 必要한 것은 鐵綱, 「씨멘트」, 自動車, 化學工業等 資本集約的인 基礎產業 및 重化學工業이다.

이러한 經濟統合에 이르기 위하여는 몇가지의 段階를 經過하여야 된다.

첫째로,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을 設置하여 地域內의 物資의 移動, 즉 商品의 移動을 沖止하는 여러 制限을 除去하거나, 加盟國사이의 關稅와 數量的인 貿易制限을 一定期間 廢止하여 地域內의 貿易을 自由롭게 하는 것이다⁽⁷⁷⁾. 그런데 「에카페」地域은 生產의 形態 및 地域內의 貿易에 있어서 地域內 諸國間의 貿易制限을 除去하지도 않으며, 地域間의 貿易增加를 圖謀하지도 못하고 있다. 大部分의 國家の 經濟構造가 貿易擴大와 같은 補完性이缺如되어 있으되, 貿易自由化에 의한 傳統的인 見地에서 商品交流의 擴張의 展望은 밝지 못하다. 또한 相互間 貿易의 自由화는 어느 面에서 地域間 貿易量을 擴大할 수 있으나, 貿易自由化에 對한 이러한 「어프로치」는 發展途上의 「에카페」諸國의 經濟成長에 큰 影響을 미치는지는 疑問視된다. 經濟成長의 手段으로서의 貿易自由化的 경우, 對內的인 資源의 動員과 伸縮性있는 補給에 依據하며, 貿易制限의 除去는 關係國의 生產에 特化로서 地域의 資源

(75)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Vol. XVIII, No. 1, *op. cit.*, p. 13.

(76) 小島 清 前揭書, p. 231.

(77) EFTA, AFTA.

을 效率的으로 使用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⁷⁸⁾.

둘째로, 自由貿易地域內 國家가 關稅同盟(Customs Union)을 締結하여, 地域外의 第3國에 對하되 共通關稅를 設定하여 各加盟國 사이에 自主權을 버리게 된다⁽⁷⁹⁾. 셋째로, 經濟統合이 相繼히 進步된 段階로서 地域內의 各國家가 共同市場(Common Market)을 構成하여 關稅同盟을 土臺로 勞動力과 資本의 移動을 完全히 自由化하게 된다. 이段階에서는 加盟國間의 貿易制限이 廢止될 뿐만 아니라, 生產要素의 移動에 對한 制限을 廢止하게 되는 것이다⁽⁸⁰⁾. 넷째로, 經濟同盟(Economic Union)이 結成되는데 經濟同盟은 共同市場보다 한 步를 더 나아가서 經濟全般에 걸쳐 政策을 調整하려는 것으로, 商品의 流動과 生產要素의 移動에 對한 制限을 撤廢하는 同時に 各加盟國間의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統一을 어느程度 實現하려는 것이다⁽⁸¹⁾. 마지막 段階의 全面的 經濟統合(Total Economic Integration)은 모든 經濟政策의 統一를 實現하려는 것이다. 즉 이 段階에서는 各國의 主權으로 부터 獨立한 行政機構의 設置가 必要하게 되는 것으로, 超國家의 行政機構를 갖고, 通貨政策, 金融政策 및 景氣政策과 같은 經濟面의 諸政策을 統一하게 된다. 그 結果, 完全한 經濟統合은 同時に 政治的 統合을 必要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장 代表的 例로서 歐羅巴共同市場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地域統合主義는 近年에 이르러 世界各地에 急速度로 傳播되고 있다. 要컨데 地域經濟協調의 目標는 「틴버겐」(Tinbergen)도 指摘했듯이, 「經濟의 最適의 運行을 沢害하는 人爲的 障壁을 除去하고 調整과 統一의 모든 所望스러운 要素를 意識的으로 導入하는 것으로, 그 장 바람직한 國際經濟의 構造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²⁾

亞細亞地域이 이와 같은 地域的 經濟統合에 있어서 疏外된 理由는 大部分의 亞細亞諸國이 第2차 世界大戰後에 誕生한 新生國家로서 國家的 統一의 段階에 겨우 到達한 것으로 超國家의 地域統合의 段階에는 距離가 멀었으며 特히 後進地域에 弛配한 排他的 民族主義는 地域統合과 對立된 概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極端의 排他主義가 民族主義와 一體화할 경우, 自由의 經濟建設은 軌道에 오르지 않고 貧困의 惡循環 속에서 해어나질 못한 例가 許多했다. 그리하여 亞細亞後進諸國은 오늘날 孤立하여서는 經濟建設을 期할 수 없다고 着實하게 되었으며 亞細亞諸國사이의 協調 특히 經濟的 協力이 胎動하게 된 것이다.

亞細亞諸國의 經濟成長率을 높이는 捷徑은 工業化이며, 工業化를 위한 投資와 生產에 以及 計劃의 調整과 이를 위한 相互協力으로, 域內市場에 對한 輸出比率의 擴大, 相互協力

(78) *Economic Bulletin for Asia and the Far East*, Vol. XVIII, No. 1, June 1967, *op. cit.*, p: 14.

(79) Benelux 關稅同盟, 赤道아프리카 關稅同盟(E.C.U.).

(80) 中美共同市場(C.A.C.M.)

(81) 1958年 設立된 Benelux 經濟同盟.

(82) Jan Tin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Elsevier Publishing Co., Rev. ed., 1965, p.57.

Tibor Scitovski,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London, Urwin Univ. Press, 1958, pp. 100~117.

의 繁密化를 피함에 있다. 亞細亞 各國은 開發計劃에 對한 相互間의 政策의 目標 및 政策의 合意等을 檢討하는 것이 重要하다. 地域的 政策調整은 部門別 혹은 商品別로 關係諸國間의 交涉에 따라, 全面的인 調整의 必要가 認識되게 될 것이다.

先進國間의 歐羅巴 共同市場이 形成되기까지 相當한 期間과 準備가 必要했었다.

經濟統合의 韻響은 많은 經路를 지나 作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競爭에 對한 效果로서 市場 販路의 數와 그 地域的 範圍를 增大하며, 原材料, 部分品 및 設備의 供給의 隘路를 除去시킬 수 있을 것이다. 歐羅巴內의 貿易이 增大하므로 能率이 높은 大企業이 小企業 代身에 登場하여, 成長力이 높은 產業이 隆盛되고, 競爭하고 있는 諸國의 產業間의 接觸을 높이어 相互間의 生產方法을 잘 알게 되므로, 新로운 投資는 가장 能率의이고 經濟的인 生產方法 및 設備에서만 이루어 진다. 經濟統合이 다만 歐羅巴內의 貿易을 自由롭게 함에 그치지 않고 資本 및 勞動의 歐羅巴內의 移動을 自由로이 하여 大規模生產 및 立地上의 開發이 보다 쉽고 둔 아니라 西歐에 있어 國家的 및 地域的 開發에 큰 差異가 있으므로 擴大와 投資를 地域的으로 集中하여 行할 수 있는 餘地가 存在하며, 여러가지 利益을 얻을 수가 있다⁽⁸³⁾.

經濟統合에 依하여, 加盟國間에 있어 貿易이 增大하고, 國際分業이 發展하여, 總體的으로 보아 加盟國의 内部 經濟組織이 改善되고, 加盟國間의 經濟關係가 繁密化된다는 利點이 있다⁽⁸⁴⁾는 것을 알았다.

亞細亞低開發諸國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工業開發計劃은 域內 經濟開發計劃의 地域的 調整의 缺如로, 各國家마다 獨自의인 國家發展政策을 追求함으로써 地域的 統合은 遷延되고 있고, 制限된 國內市場은 重工業部門에 對한 投資를 誘致함에는 너무도 적으며, 合理的인 分業 및 現代 製造技術의 適用에도 不利한 것이다. (1) 市場의 制限은 急速한 各種의 資本財 工業 發展을 不可能하게 만들며, (2) 基本的인 資本財製造 施設 없이는 亞細亞의 大部分의 國家는 이의 補給을 계속 先進國에 依存하는 것이고, (3) 亞細亞地域內의 貿易擴大 展望은 不透明하며 地域外 諸國에 對한 製造品의 輸出은 小規模工場에 의한 生產때문에 生產費가 비싸므로 輸出에 많은 隘路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亞細亞諸國의 經濟開發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2個國 以上의 國家間의 工業部門의 統合은 先行條件으로, (1) 2個國 以上的 統合된 市場은 最少限의 生產能力으로 利益을 올릴 수 있는 工場生產을 吸收할 수 있어야 하며, (2) 工業化 統合計劃에 參與하고 있는 國家는 工業化의 發展段階가 類似하여야 되며, (3) 工業發展을 위한 地域的 支援 施設과 統合 準備가 隨伴되어야 한다⁽⁸⁵⁾.

(83) Scitovsky,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op. cit.*, pp. 133~134.

(84) *Ibid.*, p. 52.

(85) *Asian Industrial Development News*, No. 2, 1967, *op. cit.*, pp. 52~54.

經濟的인 統合에는 이에 따른 利益의 配分을 均等하게 만들어야 하며⁽⁸⁶⁾, 地域的인 投資政策에 있어서도 規模의 經濟에 알맞는 工業과 統合된 市場에 適合한 工業의 設置를 위한共同措置를 講究하여, 地域內의 投資政策을 調整하는 機構를 마련하여 地域的인 開發計劃과統合에 對한 政策面에서 配慮하여야 된다.

東部「아프리카」共同市場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域的인 協調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즉 東部「아프리카」3個國間의 共同市場構成에 있어, 工業의 3分의 2以上은 「肯亞」에서 이미 發展되어 있어, 그 結果 共同市場의 利益은 工業이 發達한 「肯야」에 利益이集中되는 現象을 엿 볼 수 있다⁽⁸⁷⁾. 이것은 低開發諸地域에서 構成을 摸索하고 있는 經濟統合體에 있어서 加盟國의 經濟成長 및 工業化등에 있어서 等質의in 發展을 하는 國家끼리의 結束이 統合體로 因한 利益이 偏重되지 않고 均等하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亞細亞地域에서의 經濟的 統合體 構成에 있어서는, 이點을 配慮하여 經濟的 成長과 工業화面에서 之に 先進된 國家는 이에서 除外되어야 落後된 諸國間에 利益이 비슷하게 配分될 수 있을 것이다.

經濟的協調, 經濟的 統合 「무드」는 世界各地域에서 漸次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歐羅巴와 달리 亞細亞低開發諸國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여러가지 隘路點이 許多함을 보았다. 이러한 隘路點을 漸進的으로 克服하는데 協力하고, 段階的으로 가장 손 쉬운 部門, 商品別로 政策的인 調整을 피하면서 將次 構成될 亞細亞 經濟共同體의 整地作業이 試圖될 것이 要望된다. 「로마」도 하루에 이룩된 것은 아니다. 亞細亞各國間의 利害關係의 相互均衡을 調整하면서, 生活水準 向上과 先進國과의 激增하는 所得差를 좁히기 위한 方便으로서, 亞細亞諸國은 經濟的인 結束을 함으로써, 그들의 權益을 擁護하고, 先進國과의 「캡」을 데우며, 經濟的인 繁榮을 다짐할 수 있는 捷徑이 經濟的 協力, 統合이라는 것을 銘心하여야 될 것이다.

歐羅巴 共同市場은 發足을 위한 整地作業이 10年이란 歲月을 겪음으로서 그 헛빛을 볼 수 있었고, 設置以後 10餘年的 星霜이 흘렀다. 落後된 亞細亞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國際社會에서는 孤立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亞細亞諸國은 손 쉬운 分野와 邊境 統合이 可能한 Sub-Regional 「베이스」로 그 形成을 追求함으로서, 보다 廣域의 經濟協力 및 統合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亞細亞의 將次의 繁榮과 生活水準 向上을 위한 之의 構想은 幻想이 아니라 現實問題로서 提起된 問題이며, 이의 構成은 長久한 時日과 國間의 協調努力과 이의 設置를 위한 研究는 계속 試圖될 것이 期待된다.

(86) UNCTAD, Trade Expansion and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TD/B/85, 2 Aug. 1966), pp. 36~64.

(87) J.S. Nye, "Regional Integr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Vol. IX, No. 3(Sept. 1967), p. 18.